

## 중동유럽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고찰

김보국

(헝가리, ELTE 대학교 한국학과)

### 1. 들어가는 말

유럽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자들이 현재에도 많은 논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조금 협소한 정치경제학적 의미로는 보통 영국, 아일랜드 등 대서양의 도서 국가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쪽으로 이어지는 대서양 연안국들로부터 그리스를 포함, 오스트리아를 경계로 한 구자본주의 진영으로 한정하지만, 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유럽공동체(EU)의 결성 및 외연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정의는 다소 회미해져 가고 있다. 유럽의 정의에 대해 종교, 문화, 지리적인 여러 잣대로 러시아까지 포함한 광의의 경계를 두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서쪽의 대서양, 북쪽의 북극해, 남쪽의 지중해, 동쪽의 우랄산맥과 우랄강, 남동쪽의 카스피해, 카프카즈산맥, 흑해와 경계를 두곤 한다. 본고에서는 터키를 포함하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를 중동유럽으로 정의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본고에서 다소 뜬금없는 중동유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특징과 지리적 접근성 등 하나의 권역으로

정의를 해 두고 차후 많은 논의들을 진행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화된 지역에 대해 권역화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고민의 틀을 공유할 때 더 발전된 방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선 이 지역은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으로서 유사한 근, 현대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과거의 동일한 역사적 배경이라는 매개성보다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과거의 여러 국가간, 공적, 사적 관계가 현실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역시 다양한 교류와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이 지역적인 묶음을 중심으로 권역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럽의 경계인 우랄산맥의 서부를 유럽의 동쪽에 걸친 경계로 본다면 유럽은 오세아니아보다 조금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洲)이다. 하지만 인구는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많으며 인구밀도는 오세아니아의 20배가 넘고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50개에 가까운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중동유럽 지역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1000만 안팎의 군소국가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리만큼 다민족들로 혼성된 지역이기도 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표면적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이 민족 문제를 배경으로 이 지역에서 발발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군소국가군의 다민족 지역을 권역화 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보급과 발전의 ‘효율성’과 ‘한국어 학습과 교육의 스펠오버(spillover)’의 관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동유럽 지역은 역사적으로 주위의 강대국에 의해 많은 사회, 문화, 학문적인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지난 세기 서구 열강의 정책적인 필요 등에 힘입어 한국학 연구 및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진 프랑

스, 러시아 등 주변의 강대국과 달리 중동유럽지역의 개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일천하거나, 특정 개인의 노력과 열정, 희생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나 중동유럽 개별 국가들에서 한국어 학습의 수용자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연구자와 학습자들에 대해 한국어 교육이 정책적, 학문적, 실용적인 면에서 그 유용성이 부각되지 못한 점이 기본적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향상되고 한국 기업의 많은 직접 투자,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접하여 관심이 증대되는 한국문화의 유입으로 중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학습 잠재 대상의 저변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외연을 확대하며 정치, 경제의 블록화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현재의 중동유럽 지역에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다소 특징적인 것은 세계와 무역 장벽 등을 피해 EU 역내 지역의 생산을 위한 거대 생산 거점으로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동유럽 현지에서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며, 직접 고용 뿐만 아니라 현지의 관련 협력 업체 등을 위주로 한 2차 고용까지 추정해본다면 기존에 판매, 서비스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던 유럽 지역과는 차별되며, 중동유럽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한국어 학습 잠재 대상의 저변 확대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중동유럽 지역을 권역화는 한국어의 보급과 발전을 담보하는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필요하며 이 지역의 권역화는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중동유럽 지역의 권역화를 토대로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발전 모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법은 잘 갖춰진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견주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의 교육 경험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아래의 기본적인 방향 제시로서 일단의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며 앞으로 더욱 확장된 논의를 기대한다.

## 2. 중동유럽 한국어 발전 방안

### 2.1. 교류의 활성화

일단 중동유럽 지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기관의 상호 정기적 교류가 필요하다. 상호 정기적인 교류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역시 필요하다. 각국 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동유럽 지역에서 한국어는 극소수의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의 대학에서는 정식 학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양 수준이거나 부전공으로 선택 가능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의 본격적인 진행에 따라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긍정적, 부정적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다수의 대학에서 전면적인 한국어 과정의 도입은 실로 그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볼로냐 과정이 정한 2010년 ‘유럽고등교육영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이 출범하게 되면 현재보다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적인 지원은 선택,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러한 실정을 가정한다면 각각의 군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교육 경험, 학습 경험을 객관화, 대상화, 표준화 하는 데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 교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없는 소수의 상태에서 이러한 교류 활동이 학습 의욕을 크게 자

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국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1년에 1주일 정도의 ‘한국어 학습 캠프’ 등을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것 등이 그 하나의 실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공통교재 편찬

한국어교육에 있어 공통교재에 대한 논의와 실험, 제안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공통교재’의 이름을 담보할 만한 성과를 거둔 교재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이한 언어, 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교재 편찬이 실로 불가능한 시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나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전통적인 통사적 설명보다는 실용적인 회화나, 구문 연습에 공통교재의 실용성, 효용성을 그 목적으로 해서 시도해본다면 의외의 성과있는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동유럽 지역의 공통교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동유럽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점과 교재 편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이유와 방안은 다음의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2.2.1. 교재 편찬의 효율성** - 한국어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재 편찬은 아주 가치있고 중요한 작업이지만 실제 소수 언어권의 한 단일 국가에서 제대로 된 다양한 교재의 출간은 현실적으로 교재 편찬의 인적, 물적인 열악한 조건들로 인해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역화한 지역에서 공동의 교재는 우선 교재 사용자의 규모가 국가 단위를 뛰어 넘어선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직 하다.

**2.2.2. 교내 내용의 현실성** -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현지어로 제작된 교재들이다. 하지만 중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에 맞게 현실성있는 교재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이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중동유럽 지역의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바에 걸맞는 교재 편찬 시도는 우선 그 내용적인 대강의 틀을 보자면 문법 중심이 아닌, 기득(既得)한 문법에 대한 활용 중심, 이론 중심이 아닌 실생활의 회화 중심, 향후 한국에서의 생활을 염두에 둔 한국어가 아닌 현지에서 업무를 염두에 둔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교재를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3. 한국어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 - 그리고 공통교재는 중동유럽 지역 전체의 한국어 교육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도구로도 역할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권역 전체의 한국어 교육 정도에 대한 비교와 실질적 교육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 등으로 종합적으로는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 수준의 비교와 한국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언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제도화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틀이 바탕되어야 할 것이며 이 틀은 이 지역에 맞는 표준 한국어 능력시험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3. 표준 한국어 능력시험 도입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구사 능력에 관한 검정(檢定) 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관리를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KOPIK)’과 재단법인 ‘한국

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평가 및 교육 사업이 재단의 주요한 목적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능력인증시험'은 현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시험으로 실행되고 있다. 한국어 능력시험의 경우 세계 전역에서 시행<sup>1</sup>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중동유럽에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체적인 표준 한국어 능력시험에 대한 요구나 필요가 발생할 때까지라도 중동유럽지역에 '한국어 능력시험(KOPIK)'을 도입해서 자체적인 평가와 수준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학습자 개인의 한국어 능력을 제도화된 검증 시험을 통해 정량화한다는 의미 외에도 이 지역 각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표로서, 그리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의 현지인 고용 시에도 객관화되고 검증된 하나의 자료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2.4.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창출

---

<sup>1</sup> 독일(프랑크푸르트),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라로셀),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하마로프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카자흐스탄(알마티), 키르기스스탄(비쉬켄), 타지키스탄(두산베), 아제르바이잔(바쿠), 호주(시드니), 캐나다(토론토), 미국(뉴욕, 워싱턴, 시카고, 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브라질(상파울로), 파라과이(아순시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일본(도쿄, 요코하마, 센다이, 니가타, 도야마, 나가노, 나고야, 교토, 오사카, 오카야마, 히로시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삿포로, 오카나와, 치바, 오이타, 사이타마, 고베), 중국(북경, 상해, 청도, 홍콩, 장춘, 대련, 천진, 광주, 연대, 남경, 중경, 낙양, 유방, 양주, 무석, 무한), 몽골(울란바토르),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태국(방콕, 송크라), 대만(타이페이), 필리핀(마닐라), 싱가포르(싱가포르), 방글라데시(다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양곤, 만달레이), 인도(델리, 첸나이)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유럽 지역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유럽 내에서 생산과 설비에 대해 한국의 직접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중동유럽 한국어 교육의 환경, 발전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한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한국의, 그리고 현지의 협력 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인데 이들은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큰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일정 정도 수혜를 입은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동유럽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은 각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의 많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수요로 하고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일상적으로 그들이 학습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곳에서 전문화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데 한국 기업 역시 이 대상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동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한국어는 극히 소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상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국가적인 지원이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국가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 보다, 한국어 교육의 잠재적이나 직접적인 수혜자인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또는 이와 연관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동유럽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학습자의 언어 능력 극대화에 집중을 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수혜자의 원칙을 견지하여 현지의 세법(稅法)을 활용한 다방면의 지원-각국은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을 아끼지 않는 것은 해외에서 또 하나의 성공적인 산학협동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맺음말

이상으로 중동유럽 지역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간략하나마 살펴보았다. 우선은 중동유럽 지역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등의 이유와 유럽지역에서는 집중적인 한국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권역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논지로 제안을 해보았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중동유럽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교류의 활성화, 공동교재 편찬, 표준 한국어 능력시험 도입,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창출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제안과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이제 햇수로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의 현지 교육 경험과 고민에서 나온 것이며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신념과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오랜 기간 현지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강의를 지속할 수 없었던 주변 국가의 여러 선생님들과 공론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방안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모쪼록 개인적인 고민들이 더 큰 공론의 장에서 토의되고 더 나은 제안과 방향을 정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참고 자료>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 제17권 2호, 2006

중동유럽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제 16집, 200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론의 재정립』 ,  
2006  
김보국,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과 유럽의 한국학 발전방향  
에 대한 고찰”, 『중동유럽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 소피  
아, 2004  
볼프강 슈말레, 『유럽의 재발견』, 을유문화사, 2006  
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1997  
프레데리크 들루슈, 『새 유럽의 역사』, 까치글방, 2002

<http://www.topik.or.kr>

<http://www.tokl.or.kr>

<http://www.kf.or.kr>